

鐵道圖書館에 관한 考察

— 특히 日帝下의 圖書館奉仕活動을 中心으로 —

金 抱 玉*

〈目 次〉

緒 論	Ⅲ. 財政運營面의 實態
Ⅰ.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設立經緯와 背景	Ⅳ. 藏書構成面의 實態
Ⅱ. 鐵道圖書館의 組織 및 發展	Ⅴ. 閱覽奉仕面의 實態
1. 組織機構	1. 閱覽制度와 諸規程
2. 職員狀況	2. 圖書貸出과 그 制約性
3. 鐵道圖書館의 發展過程	3. 館外貸出奉仕領域의 擴大
	結 論

緒 論

日帝下 公共圖書館에 관한 資料를 追跡하던 중에 官立의 鐵道圖書館이 그 性格은 비록 特殊圖書館이나 制度上 公開性을 띤 公開圖書館으로서의 기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었다. 더욱이 一個 附屬機關의 規模로서 그 奉仕活動의 領域이 全國에 걸쳐 활발히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筆者는 여기서 어떻게 하여 日帝下 80餘個나 되는 많은 公共圖書館中에 鐵道圖書館만이 館內外的으로 또한 全國에 걸쳐 그 奉仕活動이 展開될 수 있었던가 疑問을 품게 되었다. 여기에는 필시 社會的인 여러 要因이 관련될 수 있겠으나, 當代의 植民教育政策과 관련지어 볼 때 國民精神 改造의 一方案으로서 鐵道圖書館도 이에 적극 參與하였을 것이라고 假設을 設定하였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1) 日帝가 鐵道圖書館을 設立한 社會的·教育的인 背

*全北大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2 도서관학논집

것과 動機를 살펴보고,

2) 鐵道圖書館 組織의 變遷과 閱覽制度上的 運營 및 館外奉仕活動의 狀況 등을 分析해 보며,

3) 그것이 오늘날 우리 圖書館界에 미친 영향과 殘滓要因들을 찾아 보고자 試圖하였다.

I.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設立經緯와 背景

鐵道圖書館의 設立目的은 當 圖書館規程·第1條에서 밝히고 있듯이, “鐵道圖書館은 주로 鐵道에 관한 각종 참고서적들을 備置하여 업무의 參考 및 從 事員의 研究心を 向上시키고 아울러 德性의 涵養을 꾀하고자 함이다.”⁽¹⁾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目的 이외에 鐵道圖書館의 設立背景에는 보다 內面的인 植民政策의 目的을 지니고 있었다.

鐵道圖書館은 본래 1920年 5月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京城鐵道局 附屬機關 으로서 京城鐵道學校가 龍山에 세워지자 이어서 그 옆자리에 滿鐵京城圖書館이란 이름으로 건물이 세워진 것이다.⁽²⁾

당시에 南洲鐵道株式會社는 朝鮮總督府로 부터 鐵道沿線에 따른 管理運營 權을 위탁받았던 시기였다. 원래 南滿洲鐵道株式會社는 이미 1910年 처음으로 滿洲圖書館을 개설한 경력이 있던 실정으로 이를 토대로 이어서 鐵道沿邊의 要地인 大連·哈爾濱에도 圖書館을 설치하였으며, 그 藏書들은 주로 會社 業務에 參考가 될만한 文獻들을 中心으로 蒐集하고 있었다.⁽³⁾

鐵道圖書館이 設立되던 당시는 朝鮮總督府가 3·1運動 이후 1922年 2월에 이르러 이른바 「朝鮮新教育令」을 公布하던 때로서 強硬教育政策의 迂廻로서 우리 民族의 思想과 言語등 固有文化를 抹殺하고 人間을 改造하려는데 그 目的

(1) “鐵道圖書館規程.” 鐵道圖書館藏書目錄·技術關係·上(昭和15年3月末 現在), 京城府, 鐵道圖書館, 昭和16(1941). 卷末別添.

(2) 古野健雄.“終戰前後의 鐵道圖書館,” 日本圖書館雜誌 1965, 8. pp.49~51.

(3) Ibid., p.50.

을 두고 있었다. (4) 이같은 新教育令의 意圖는 圖書館設立과도 관계되는 것으로서 日·鮮一切의 國民教育을 꾀하는 한편 그들의 目的에 따라 民族同化政策의 一翼을 담당할 기관의 必要性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당시 日本政府는 南滿洲鐵道株式會社와 협력하여 日本과 滿洲를 잇는 橋梁役으로서 우리나라의 釜山에서 京城을 거쳐 滿洲에 이르는 各鐵道の 沿邊을 확장시키어 이들의 諸施設을 강화하고 整備하는 것이 最上目的의 使命이었다. (5)

이러한 그들의 任務를 遂行키 위해서는 이에 核當되는 技術관계서적의 많은 知識과 새로운 情報를 必要로 하였다. 이에 따라 鐵道圖書館에서는 各鐵道沿邊을 中心으로 從事員들의 業務에 關係되는 참고서적은 물론 蒐集의 범위도 더욱 擴張시키고 있었다.

一面, 日本政府가 鐵道沿邊의 길이를 더욱 擴張強化시킨 意圖는 일찍이 그들의 계획이 中日戰爭을 준비키 위한 手段이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鐵産資源 이외에 많은 貨物들을 빠른 時日內에 日本人領土로 運搬시킬 수 있는 交通路의 必要性을 切感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鐵道圖書館에서는 이같은 막중한 임무를 꾀고 있는 鐵道從事員들에게 防空認識과 專門技術 및 教養涵養에 必要한 資料들을 蒐集 提供해야 했음은 당연한 任務였다고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鐵道圖書館의 林靖一 館長은 1937年 4月 1日 館員들의 服務指針으로서 “鐵道圖書館 館訓을 제정하였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清廉謹直·點檢強化·誠實親切·研究練磨·協力共和·心身鍛鍊·事故防止·應對明朗·業務改善·館務進綴 등으로서, (6) 이를 청사진으로 복사하여 사무실 요소요소마다 붙이도록 했고, 매일 朝禮때마다 複唱토록 하였다. 이러한 植民社會的 背景을 안고서 그 出發을 보게 된 것이 바로 日帝下 우리나라의 鐵道圖書館이었다.

(4) 韓基彥, 日本의 文化侵襲史, 서울, 民衆書館, 1970. pp.19~22.

(5) 古野健雄, Ibid., pp.49~51.

(6) 朝鮮圖書館研究會, “館務改善資料(2),” 朝鮮之圖書館 Vol. 6, No. 3, 昭和13(1938), pp.10~21.

II. 鐵道圖書館의 組織 및 發展

1. 組織機構

鐵道圖書館의 內部組織의 機構編成에 대해서는 資料가 不充分하여 正確히 밝히기는 어렵으나, 文獻上으로는 193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나타난다.

1920年創設당시의 組織狀態는 一般的인 양상으로서, 庶務·閱覽·藏書係등 3係로서 區分·編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후 1936년에 비로서 目錄係가 추가로 新設되어, 날로 증가되는 도서정리에 적극적으로 주력하도록 시도하였다. 이같이 業務를 四係部署로 改編 착수하던 鐵道圖書館은 이듬해(1937)年初 職制 改訂時 目錄係 외에 다시 巡迴文庫係를 追加 편성시키어 5係部署로 機構를 擴大시켰다.⁽⁷⁾ 이어서 1937年 4月 1日에는 또한번 職制를 再 改編하여 5係外에 敎養係를 新設 모두 6係로서 擴充시키고 各係에는 主任과 副主任을 각각 配置시켜 事務의 統制 및 圓滑을 도모토록 하였다.⁽⁸⁾

即,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職制 改編마다 새로이 增設되는 機構의 編成이 奉仕面에 厝重되고 있었음이니, 이는 특수도서관으로서 鐵道局員들의 敎養向上과 奉仕活動을 위주로 삼은 組織體系로 發展되고 있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2. 職員狀況

鐵道圖書館의 人的構成을 파악해 보면, 圖書館規程·第 4條에서 밝히고 있듯이, “圖書館에는 主事를 배치하되 主事는 庶務課長의 命令을 받아 館務를 處理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와같이 創設 당시의 圖書館運營은 鐵道局의 庶務課長의 責任下에 있었으나, 滿鐵의 위탁경영때에는 京城鐵道學校의 校長이 명

(7) 朝鮮圖書館研究會, “朝鮮圖書館界,” 朝鮮之圖書館 Vol. 5, No. 5, 昭和 11(1936), 10. pp. 42~43.

(8) 朝鮮圖書館研究會, “館務改善資料(2),” 朝鮮之圖書館 Vol. 6, No. 3, 昭和 13(1938), pp. 10~21.

에직으로서 圖書館長職을 겸하고 있었다. 또한 朝鮮總督府가 鐵道局을 회수하여 再直營하면서 부터는 또다시 當 鐵道局의 서무과장 소속하에 主事 林靖一氏가 모든 業務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大正 15(1926)年에 主事로 있던 林靖一氏가 判任官으로 昇進되면서 부터는 모든 도서관업무를 獨自의으로 直接 管理 運營하게 되었다.⁽⁹⁾

또한 日帝下 圖書館 職員狀況을 分析할 때 특징적인 점은 鐵道敷設機關에 관련된 從事員들은 거의가 日本人으로서만 採用되었다는 사실이다. 鐵道圖書館 역시 例外는 아니었던 것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判任官 이하 總 20名 중 18名이 모두 日本人이고 傭人 2名만이 朝鮮人으로서 그것도 임시 채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⁰⁾

1937年 巡迴文庫가 設置되면서 부터는 점차 직원수도 증가되어 1943年 交通圖書館으로 改稱될 때는 도서관 전직원이 모두 45名에 이르렀다. 그러나 時局의 움직임에 따라 戰爭에 불려 나가는 응소자가 늘어나고, 차츰 日本명으로 불려 들어가는 日本人이 증가되고 보니, 한때 古野健雄氏가 圖書館을 책임 운영할 시기에는 중등학교를 나온 韓國人 職員만도 3名이나 採用되었다. 그중에 2名은 징용을 피하기 위하여 鐵道現場으로 轉出하게 되니 최후에는 朝鮮人 1名뿐이었다 한다.

설명한 바와 같이 日本人들이 朝鮮人の 고용을 꺼리었던 일은 軍事 및 鐵道敷設에 관한 技術關係書籍 등의 保存과 文書保安上 및 行政關係 情報등을 統制키 위한 意圖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폐단은 戰時體制의 狀況에 따라 圖書館 運營權이 잠자기 日本人에서 朝鮮人으로 넘어오게 되자 朝鮮人들은 도서관 시설을 引受하고서도 어찌할 것인지 그 方法을 강구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古野健雄 館長에게 명예고문직으로 남아 있기를 請하였으나 그도

(9) ④ 關野直吉, “朝鮮, 滿洲圖書館을 말하다,” 日本圖書館雜誌 1965, 8, pp. 64~72.

⑤ “鐵道圖書館規程,” Ibid.

(10)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統計年報·大正 15年版, 1926. p. 4.

公式的인 要求가 아닌 탓으로 거절하고 日本으로 떠나고 말았다.⁽¹¹⁾

동시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各 部署에서 종사하던 직원들의 身分別 構成을 分析해 보면, 館長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專門職보다는 行政主事나 書記·고용원·잡사·수위 등과 같은 非專門職들로서만 구성되어 있었다.⁽¹²⁾

3. 鐵道圖書館의 發展過程

韓日合併 이후 종전의 鐵道院韓國鐵道管理局은 폐지되고, 1910年 10月 1日 朝鮮總督府는 鐵道局을 設置하였다. 그후 7年뒤, 1917年 7月 31日 朝鮮總督府는 다시 韓國鐵道の 經營權을 南滿洲鐵道株式會社로 완전 委任시키어 그동안 施行되어 오던 鐵道局 官制를 폐지하는 한편 滿鐵은 서울에 管理局을 설치하여 위탁 經營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京城管理局은 1919年 4月 1日 京城에 鐵道學校를 設置하고 이듬해 5月에는 학교옆에다 滿鐵京城圖書館을 設立하였다. 비로서 그해 7月 21日 當圖書館은 本 京城鐵道管理局의 庶務課長 所屬下에 개관을 보게 되었다.⁽¹³⁾

4年後 1923年 6月 5日 滿鐵京城管理局은 그 名稱을 滿鐵京城鐵道局으로 改稱하던서 本 鐵道局에는 6課를 설치하였으나, 2年뒤인 1925年 4月 1日에는 마침내 8年기간동안의 委託經營權을 南滿洲鐵道株式會社로 부터 회수하여 第二次 朝鮮總督府 直營으로서 再還元하였으며 동시 滿鐵京城鐵道局은 폐지시키고 말았다. 한편 從前의 事務分掌規程도 全面 폐지되고 새로이 7個課로 再組織 운영되므로써(서무과·감독과·영업과·운전과·공무과·기계과·경리과) 종전의 도서관 명칭도 滿鐵京城圖書館에서 鐵道圖書館으로 2번째 改稱되고, 그 管理도 庶務課소속하에 운영토록 하였다.⁽¹⁴⁾

14年 後, 1939年에 이르러 朝鮮總督府 直轄 鐵道局은 그 部署를 11個課로 擴張 運營하던서 圖書館 管理上 충족되어 오던 博物館 性格을 별도 구분하여

(11) ② 古野健雄. Ibid., pp. 49~51.

③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統計年報·大正 14年版, 1925. p. 276.

(12) 古野健雄. Ibid., p. 51.

(13) 大谷留五郎. 朝鮮鐵道概論. 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昭和 4(1929). pp. 107~115.

(14) 古野健雄. Ibid., pp. 50~51.

새로이 순수한 도서관봉사를 中心으로 發展 變貌해 나갔다.

終戰直前 1943年 2月 1日에 와서는 그 동안의 朝鮮總督府 直營·所屬의 鐵道局을 세관·海事·航空등과 같은 관계부분의 업무를 모두 移管 併合시키어 交通局으로서 기구를 기원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따라 鐵道圖書館도 또 다시 交通圖書館으로서 3번째 그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¹⁵⁾

Ⅲ. 財政運營面の 實態

朝鮮의 鐵道는 日本과 滿洲를 잇는 파이프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諸施設을 強化하고 整備하는 것을 國策上 地上命令으로 삼았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本國에서 行하여진 林靖一 관장의 最初의 業務는 방공관계로서 바로 運輸系統에 관한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鐵道圖書館은 당초에는 私立圖書館 性格으로서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서 그 운영의 경비를 一切 調達하였으나, 朝鮮總督府가 이를 되수 直營하면서 부터는 國家에서 財政 一切를 부담하였다.⁽¹⁶⁾

1917年頃 總督府의 예산이 約 10億圓 가량일때 鐵道관계에서 卅에 가까운 豫算을 사용하였던 점으로 미루어⁽¹⁷⁾ 朝鮮國有鐵道の 重要性和 圖書館 관계 업무의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그 후 古野健雄氏가 運營의 책임을 이어 받았는데 당시 鐵道圖書館의 도서비 예산은 鐵道圖書館과 帝國圖書館 및 總督府圖書館의 3個 圖書館이 國內圖書館界에서 最高의 예산액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다. 이는 총독부도서관의 荻山 館長이 每年 豫算時期에 자랑삼아 얘기한 內容에서도 알 수 있다. 이를 인용하면 “이는 한 官廳의 부속도서관에서 이같이 많은 豫算을 받은 事例는 戰前戰後를 통하여 보기 드문 일입니다”⁽¹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鐵道圖書館

(15) loc. cit.

(16)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圖書館雜誌 1965, 8, p. 50.

(17) Ibid., pp. 49~50.

(18) Ibid., p. 51.

의 豫算은 朝鮮內 많은 公共圖書館에서도 상당히 上位에 處하고 있었으며 그 豫算은 植民地政策의 一道具로서의 公開圖書館 機能과 그에 부합된 活動領域을 넓히는데 중요한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Ⅶ. 藏書構成面の 實態

일본의 「圖書館雜誌」資料에 依하면 終戰 당시의 장서량이 總 16萬卷이라 하나, 資料의 부족상 그 內容을 분석치 못하였으나 안타까운 일은 그 藏書의 대부분이 6.25動亂 때 거의 燒失되어 버린 것이다. 그 中에 西洋書는 겨우 1,2千餘卷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和漢書였다 한다. 創設 당시의 장서구성 내용은 鐵道 및 工學관계의 技術서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¹⁹⁾ 1925년에 鐵道圖書館으로 改稱되던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鐵道圖書館은 本館 所藏의 藏庫備置用藏書 외에도 순회문고와 교양문고, 그리고 各課 專用備置圖書와 아동도서등으로 區分되어 이들을 다시 10區分으로 그 도서내용을 分類하고 있다. ⁽²⁰⁾

蒐集된 資料에 依하여 1925년을 기준으로 鐵道圖書館의 年間 增加되는 도서량을 分析해 보면, 圖書館內 비치용도서는 4,767冊, 순회문고는 1,700冊, 아동도서는 759冊이 증가하며 各課 專用備置圖書는 925冊이 증가되는 것으로 年間 總 8,151冊이 增加되고 있다. 그 主題別 增加圖書의 內容과 아울러 廢棄되는 藏書의 除籍數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도표 1>과 같이 나타난다. 卽, 語學·文學관계의 서적이 가장 많이 수집되었으며 다음으로는 政法·經濟 등의 社會科學系統, 그리고 産業·交通·通信의 工學系統, 다음이 總記 및 哲學·宗教 등의 人文系統의 순위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鐵道圖書館의 장서수집경향은 文學·語學系統에 치중되었으나 실제 藏書所藏量의 分布는 資料의 不充分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어려우나, 各部

(19)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總督府鐵道局年報·昭和 11年版. <第8節·圖書館> p. 29.

(20) Ibid., 大正 14年版. 1926. pp. 265~275.

〈도표. 1〉 鐵道圖書館의 藏書蒐集表(1925年度)

區分 部門別	도서관	서내비치용	고순회	문고용	아동도서용		각과전용용		총증가수 책
	增加	除籍	增加	除籍	增加	除籍	增加	除籍	
總記	책 418	책 830	책 174	책 398	책 759	책 2,344	책 925	책 1,514	책 2,276
哲學·宗教	345	122	113	327					458
敎育	141	67	72	61					213
文學·語學	1,484	505	454	1,013					1,938
歷史·傳記·地理·여행	397	126	185	322					582
경법·경제·통계·가정 풍속기타	1,006	428	325	678					1,331
理·數·醫學	161	118	111	164					272
工學·兵事	252	227	19	87					271
미술·음악·오락 운동·유희기타	225	97	218	116					443
산업·통신·교통	338	740	29	326					367
計	4,767	3,260	1,700	3,492	759	2,344	925	1,514	8,151
增加	40,125		14,594				8,187		67,135
除籍		3,260		3,492				1,514	10,610
現在藏書冊數	36,865		11,102			1,885	6,673		56,525

門別로 나타난 장서의 除籍數로 살펴본다 藏書量은 물론 質에서도 대단히 신진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도 장서의 蒐集과 除籍業務가 가장 빈번하였던 分野는 最新性의 知識과 技術을 요하는 工學·兵事系統과 産業·通信分野 그리고 參考書籍으로서의 總記部門으로 나타난다. 또한 巡迴文庫中 文學·語學과 經濟·風俗系統의 除籍圖書數가 많았던 것은 館外貸出圖書로서 이에 관한 讀書傾向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以上에서 살펴보듯이, 鐵道圖書館의 藏書蒐集은 時局에 관련된 資料들이 主對象으로서, 이는 山本春喜氏가 「非常時局 パニフレツト圖書館」이란 글에서 「北支事變의 例를 들어도 中日戰爭의 경과, 支那의 地理, 風俗, 政治, 經

濟 기타 정확한 資料를 圖書館에서 搜訪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고 말한 내용으로서도 그 意圖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戰爭이 치열할수록 이러한 時局관계자료의 수집은 더욱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鐵道圖書館은 一般圖書館과는 다스의 獨立的이며 고립된 위치에서 圖書館活動을 展開하였으며, 그 利用이나 蒐集에 있어서도 다스의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파악하게 된다.

V. 閱覽奉仕面의 實態

本 研究著書 筆者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다. 한 國家에 일정 機關이 설치되는데는 반드시 그 前提의 要因이 수반되듯이, 鐵道圖書館의 閱覽制度上의 公開性은 制度 그 自體에 優先하여 實際上으로 어떻게 活用해 나갔는가가 중요한 문제일것 같다. 이에 蒐集된 資料를 中心으로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閱覽制度와 諸規定의 分析

③ 閱覽資格: 鐵道圖書館規則·第1條에서 밝힌바와 같이, “當刻 鐵道局員 및 그 家族, 그리고 局外者는 本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서 누구나 閱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地域內 居住者의 연대보증인의 連署가 첨부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第4條에서는 但書로서 15歲미만 인자와 局外者로서 20歲미만인자들 또는 館內 規律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해서는 圖書館의 入館을 不許하고 있었다. 아울러 규정위반이나 係員의 指示에 따르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退館 및 一定期間 열람을 許하지 않기도 하였다.⁽²²⁾

이와 같이 鐵道圖書館은 열람규칙상 公開圖書館의 성격을 표명하여 外部 一

(21)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圖書館雜誌 1965, 8. p. 51.

(22) ③ 滿鐵京城圖書館. “滿鐵京城圖書館規則.” 大正 14年版, 1926. pp. 503~506.

④ “鐵道圖書館規程,” Ibid.,

一般人에게도 특경의 館內閱覽의 기회를 허락하였던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館內에서 그 閱覽의 필요성을 꼭 認定해야만 했고 또는 市內居住者나 所屬機關長의 保證人 連署를 받아야만 한다는 一面의 制約性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閱覽의 制約性은 日帝植民地下에서 私立의 公共圖書館보다는 朝鮮總督府나 各 地方官廳에서 경영해 오던 官立 또는 公立性格의 公共圖書館에서 많이 시행되어 왔던 공통점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⑤ 閱覽料의 徵收問題：閱覽料은 예나 지금이나 도서관운영에는 별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圖書館을 찾으려는 一般人의 心理를 低下시키는 要因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鐵道圖書館에서도 예외없이 館內나 館外貸出의 區別없이 열람료를 徵收하고 있었으니,一回 열람에 3錢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징수된 열람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事由로도 換拂치 않게 되어 있었다.

이같은 事例는 다만 閱覽者에게 勉學의 분위기를 조성기 위한 心理的 제약에서 취해진 방법이라고 말하나, 事實上 本 鐵道圖書館의 경우는 예외로서 주로 日本人에게 부여되는 待遇閱覽券이나 局員閱覽券을 所持한 者에 限해서는 閱覽料을 징수치 않고 있었다. 분석해 볼때, 이러한 有料閱覽制度도 日帝治下에서 朝鮮人이 경영하던 私立圖書館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事例들이라 하겠다.⁽²³⁾

⑥ 圖書貸出과 그 制約性：圖書貸出의 閱覽券은 待遇·局員·特別貸出閱覽券의 3種으로 區分한다. 待遇閱覽券은 本館에서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局員閱覽券은 일반 局員中 해당자에 대해서 所屬課長의 요구에 의해서 發行되었다. 特別貸出閱覽券은 本館에서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鐵道局員의 子弟로서 학생 또는 一般局外者로서 局員 또는 官公署所屬長의 保證人을 받은 자라야 한다.⁽²⁴⁾

(23) 金抱玉, "日帝下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6輯, 1981. pp.137~164.

(24) "鐵道圖書館規程"中 '第2章·閱覽券', 鐵道圖書館藏書目錄·昭和 15年度版, 1941. 卷末別添.

貸出圖書數는 館內·外閱覽 다같이 1人 1회에 3冊以內로 되어 있으나, 小說과 戲曲類는 1冊에 限하였다. 但, 當館에서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 冊數에 制限하지 않는다 라는 別則을 두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局外員이 신청하는 冊數에 관하여는 適宜 制限 또는 選擇을 加할 수 있게도 되어 있다. 그외에도 本館에서 貸出을 禁止시킨 지정도서는 貸出을 不許하였으니, 例를 들면 ①字彙·辭書類 ②繪畫·圖案集·寫真帖類 ③本館에서 必要에 의해 貸出禁止 하는것 등으로 되어 있다.⁽²⁵⁾

그러나 反對의 狀況으로서 當 圖書館에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冊이거나, 局員들의 業務參考, 교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冊에 대해서는 특별히 所定의 期間 또는 數量에도 제한없이 그것도 無料로서 積極적인 도서대출을 許可하였던 一面은 상호비교로서 대조할만한 좋은 事例라 하겠다.

2. 利用者와 閱覽圖書의 分析

鐵道圖書館에 對한 利用者 狀況調查를 不充分하나마 <도표 2>로서 기준하여 살펴보면, 大正 14年(1925) 당시는 鐵道局의 管理運營이 滿鐵株式會社의 委託經營에서 조선총독부의 직할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前年度(1924)보다도 低調한 現상으로 나타난다. 이로서 열람장황이 보다 우세하였던 大正 13年(1924)은 開館하루 當 平均 103名으로서 나타난다. 한편 같은해 館內·外利

<도표 2> 鐵道圖書館利用者狀況表

〔館內閱覽〕
1925年度

利用者區分 年度	開館 日數	局員			外來者		計
		局員	家族	學生	學生	其他	
大正 14年 本年度分	275	4,601	259	1,474	2,659	2,700	11,693
大正 13年 前年度分	328	9,807	203	7,925	9,768	5,992	33,695

(25) ② 滿鐵圖書館, 滿鐵圖書館藏書目錄·大正 14年版, 1926. p. 504.

④ “鐵道圖書館規程”中 <第30條>“館外貸出”鐵道圖書館藏書目錄(昭和 15年版), 1941. 卷末.

用狀況을 살펴보면 館內利用이 館外利用에 비해 2,175名이 더 많다. 卽, 當 鐵道局所屬의 局員(9,807名)과 그에 관련된 가족(203名) 및 학생수(7,925名)를 모두 합하면 17,935名으로 나타나며, 기타 外部人은 [(도표 2)에서 外來者란 局員外 主로 朝鮮人과 小數의 優待閱覽券 所持者를 가리킨다] 朝鮮人 學生과 成人등을 합하여 15,760名으로서 館內利用이 優勢한 편이다.

學生利用率에 있어서는 館內보다는 館外利用率이, 成人利用率에 있어서는 館外보다는 館內利用率이 各各 優勢한 것으로서, 이는 當 鐵道圖書館이 특수 도서관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外來人 利用者層가운데서도 가장 資格認定上 또는 利用節次上의 制約을 가장 많이 받은 主對象은 朝鮮人의 一般成人으로서 그 利用機會를 자유로이 얻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圖書閱覽을 위해 所屬 勤務處 機關長의 保證人 連署를 받아내야되는 閱覽制度란 日帝治下 失職이나 徵兵으로 生活이 一定치 못하였던 朝鮮人들에게는 실로 어려웠던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운데서도 鐵道圖書館의 館·外部人의 利用숫자가 日帝下 다른 여러 도서관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현상은 鐵道 各沿邊을 따라 圖書館의 館外奉仕가 可能했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

<도표 3>을 중심으로 閱覽圖書의 독서경향을 살펴보면, 文學·語學分野가 가장 上位이고, 그 다음은 經濟·統計·風俗과 理·工學系統·兵事 및 醫學系統으로서 그 우선순위를 나타내며, 독서경향이 가장 低調한 것은 敎育과 哲學·宗教 및 總記 등의 順位로서 나타난다. <도표 2·3參照>

<도표 3> 鐵道圖書館閱覽圖書分類表

{1925年度} 기준.

部門別	總記	철학 종교	교육	文學 語學	역사·지리·여행	정경통계·회수	理學·數學·醫學	工學·兵學	오락·운동·미술·음악·유희·기타	산교통	업용신	신문·잡지	計
館內閱覽	1,099	2,480	1,283	11,222	3,590	4,733	6,641	3,376	2,232	2,994	15,921	55,571	
館外閱覽	1,189	2,383	937	11,927	2,263	4,605	3,349	3,477	2,989	2,675	—	35,794	
巡廻文庫	5,931	5,454	936	23,802	4,669	6,279	1,428	356	5,380	697	—	54,932	
家庭文庫	3,149	1,789	381	3,336	858	3,154	309	10	436	24	—	13,446	
合計	11,368	12,106	3,537	50,287	11,380	18,771	11,727	7,219	11,037	6,390	—	159,743	

특징적인 일은, 日帝下 대부분의 公共圖書館에서 가장 低調한 현상을 나타내던 産業 및 工學·兵事계통의 讀書경향이 鐵道圖書館에서는 敎育과 哲學·宗教系統의 分野로 異例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로 鐵道局員을 利用對象으로 日帝下 時局에 부응되는 現業關係의 專門書籍들을 읽고, 항상 새로운 技術과 高度의 産業을 育成토록 적극 장려하였던 사실을 입증한다.

3. 館外貸出奉仕領域의 擴大

朝鮮總督府가 鐵道經營權을 南滿洲鐵道株式會社로 부터 再還元하여 運營하던 시기, 鐵道圖書館은 釜山에서 滿洲에 이르는 全線에 걸쳐 30餘個 정도의 驛所 圖書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어느 곳에서나 館外貸出制度를 採用하고 있던 것으로서, (26) 적극적 봉사를 통한 독서장려의 양상은 일본인들의 中日戰爭勃發을 前後로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當時 館長으로 있던 林煇一氏는 “鐵道를 中心으로 한 圖書館經營은 먼저 그 內容에 있어서 交通 및 經濟 政策本位등에 實用圖書등을 수집하여야 하며 公開圖書館과 같이 敎養·慰安등의 방면에도 提供하기 위해 넓고 깊게 보편적으로 무엇이든지 좋다는 주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가한 餘假時間을 메꾸기 위한 列車文庫와 從事員들의 정심함양에 바탕이 되도록 하기 위한 巡迴文庫, 그리고 婦女층을 위한 家庭文庫등의 설치 취지를 설명하고 結論적으로, “圖書館의 目的은 貸出主義를 第一로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7)

그리하여 館外貸出制度에 대한 活動範圍도 巡迴文庫와 敎養文庫, 家庭文庫, 列車文庫·호텔文庫·心田開發文庫등의 여러 手段으로서 多角的인 영역으로 試圖되었다.

그 實例로서 1936年 圖書館週間을 맞이하면서 부터는 無料貸出을 적극 장려하여, 從來는 局員의 업무관계도서에 限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시켜 無料貸出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 節次도 간소화하여 종래 長主任을 경유하여 當

(26) 古野健雄, “滿鐵安東圖書館의 館外貸出制度.” 朝鮮之圖書館 Vol. 5, No. 3. 4, 昭和 11(1936), pp. 16~26.

(27) 秋山生, “退色錄.” 文獻報國 Vol. 2, No. 3, 昭和 11 (1936), pp. 21~29.

圖書館에서 필요함을 인정할 시에만 가능하던 것을, 이를 계기로 長·主任의 경우 신청 절차를 모두 폐지시키었다.⁽²⁸⁾

이듬해 1937年 11月 1日~7日 期間의 圖書館週間에는 館內·外 貸出圖書의 無料閱覽과 아울러 포스타 1,700枚를 各 驛區所마다 配布하고, 局員에 대한 書庫의 개방을 行하고, 全線의 長과 主任들과 기타 約 1,500名에게 적극대출을 促하여 독서장려를 진력하였다. 이같은 행사는 결국 讀谷週間 總 6日間에 貸出人員을 3,375名으로, 貸出冊數는 5,549冊으로서 鐵道圖書館 開館以來의 最高의 기록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期間이 끝나면 계속하여 國民精神 作興 期間을 설정하여 이 關係의 도서를 積極的으로 無料 貸出하였다. 이 外에도 每日 特輯目錄을 발간하여 各 研究所마다 標題를 제시하고 독서를 장려토록 하였으니⁽²⁹⁾ 실례로 昭和 12年度의 內容을 살펴보면 :

4月에는 結核예방과 交通안전, 5月에는 항공·하이킹, 6月에는 농물증진, 7月에는 外客誘致, 8月에는 政治事情(一), 9月에는 支那·政治事情(二)·放空·劍刀등, 10月에는 禁己, 11月에는 國民精神作興, 12月에는 赤穗義士, 이듬해 1月에는 中日戰爭, 2月에는 日本建國史 등으로 1938年度의 社會的 背景을 表現하고 있다.⁽³⁰⁾ 그러면 여기서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附帶事業으로서 的 館外貸出奉仕의 領域을 살펴보고자 한다.

③ 巡迴文庫活動

鐵道圖書館의 從事員을 위한 것으로 철도 沿線을 무려 275個의 巡迴區域으로 나누어 各區마다 한 箱子씩 廻送해 주었다. 당시 여기에 使用된 箱子數만 도 千個에 가깝고 每日 20個정도의 상자가 返納되고 다시 發送되며 또한 局員및 一般個人의 貸出도 활발하여 每日 貸出冊數는 一萬冊을 헤아렸다 한다. 특히 地方의 鐵道局員도 열차편을 이용하여 通信·貸出이 자유로웠다. 이러한 圖書 輸送은 本局이나 末端의 驛에 이르기까지 圖書·新聞·雜誌등 圖書

(28) 朝鮮總督府內·朝鮮圖書館研究會. “鐵道圖書館.” 朝鮮之圖書館 Vol. 5, No. 6, 昭和 11(1936). pp. 63~66.

(29) 朝鮮總督府內·朝鮮圖書館研究會. “館務改善資料(2).” 朝鮮之圖書館 Vol. 6, No. 3, 昭和 13(1938). pp. 10~21.

(30) loc cit.

資料의 需給에 대한 一切의 업무들을 도서관에서 담당하였으며, 근무지에 서점이 없는 직원을 위해 月賦로 도서를 구입케 하였다.

⑤ 敎養文庫活動

鐵道局 各 沿線 區所마다 종사원에 대한 現業敎育의 助成을 目的으로 하고, 業務의 改善·능률의 증진을 目的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各 區所의 現業 敎養上 적절한 專門書籍과 心田開發圖書를 함께 編成시켜 85個의 교양문고를 全線에 걸쳐 20日間씩 거치도록 회송하였다. 次後 心田開發圖書는 1936年 4月부터 心田開發文庫로 특별히 別送 編成시키었다.⁽³¹⁾

⑥ 心田開發文庫活動

日帝下 鐵道圖書館 館外奉仕面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一面이다. 이 心田開發文庫는 植民地下 日本人들에 의한 우리 民族의 抹殺政策과 關連하여 日鮮一體란 名目下에, 그리고 皇國植民化政策이 극도로 膨脹하던 시기인 바로 中日戰爭의 勃發을 前後로 展開되었던 奉仕活動이다.

“心田開發”이란 즉, “마음의 발”을 가꾼다는 뜻으로 독서를 통해 心(마음)을 수양하고 새로운 心構정신으로서 刷新시킴을 가리킴이니, 바꾸어 말하면 이는 戰爭에 임하는 國民들의 정신적 자세를 強化시키려는 意圖的 動機에서 試圖된 정책이었다. 이 活動은 대단한 영역으로서 全國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日本人은 물론 朝鮮人에게도 많은 독서의 勸進을 위한 手段과 기 회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資料에 의하면 1936年 당시 一 個月 동안의 여러 館外貸出圖書中 心田開發 文庫의 發送冊數만 하더라도 2,275冊이나 되었다. 그 貸出圖書의 主題別 內容을 살펴보면 卽, 國史(日本)·國民道德·修養·武士道·經書類·諸子·종교일탄·불교·기독교·가정교육·건강법 기타 德性의 함양·情操陶冶에 關한 通俗書로서 편성되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閱覽者數는 2,940名, 열람책수는 4,661冊으로서 나타났다.⁽³²⁾

(31) 鐵道圖書館, 鐵道圖書館藏書目錄(昭和12年版), 1938. pp.160~164.

(32) 朝鮮圖書館研究會, “鐵道圖書館의 心田開發文庫,” 朝鮮之圖書館 Vol. 5, No. 3. 4, 昭和11(1936). p. 84.

또한 本文庫의 독서장려를 촉진키 위해 특별히 圖書館內 출납대 위에다가 前에 없던 새로운 內容의 心田開發의 관계도서를 受容하여 枱架를 설치해 두고, 이를 수시로 내용을 바꾸어 增備토록 하였으며, 수시로 局員에 대해 적극적 무리대출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心田開發에 관계되는 서적은 鐵道局 報로서 수시로 一般局員에게 널리 알리는 외에 同館에서 每日 刊行되는 新着圖書追加目錄중에 心田開發圖書의 페이지를 특집으로 수록하였다. (33)

당시 鐵道局長 吉田浩氏는 이 運動指導의 한 도움으로서 수양서·「幼學綱要」150冊, 野田清治의 「世間雜話」900冊을 구입하여 各 研究所에 配布하도록 지시하였다. (34)

또한 中日戰爭 勃發日에는 종사원들의 時局認識을 높이기 위해 8月 7日에는 「最新北支那詳圖」를 10,000枚와 上海부근要圖 1,500枚를 그리고 9月 2日에는 「週報」와 事變特輯 1,2號를 各 1,000冊씩, 3號도 1,000冊등. 시국관계의 도서를 各課 및 各鐵道 改良建設事務所, 工場, 호텔 및 병원·직원양성소에다가 配布하기까지 (35) 이 奉仕活動은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① 列車 및 호텔文庫活動

鮮滿直通 列車乘客을 위하여 京城管理局에서는 約 30個 정도의 各 驛區所마다 文庫本 31箱子를 보내어 누구에게나 어느곳에서든 無料로 館外貸出을 實施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더욱이 各 驛區所의 管理列車區長은 일주일마다 한번씩 圖書와 (1箱子에 40冊씩), 雜誌(20冊以內)를 송부받아 새로운 資料로서 이를 代替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36)

아울러 朝鮮內 各 鐵道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旅客들을 위하여서도 별도 文庫本 6箱子를 無料로 貸出토록 提供하였다. (37) 그후 1936年 12月 1日부터 列車文庫는 釜山-봉천間 특급열차에 敷設되었던 小型列車文庫를 폐지하고 大

(33) Ibid., p. 84.

(34) loc. cit.

(35) 朝鮮圖書館研究會, “館務改善資料(1),” 朝鮮之圖書館 Vol. 6, No. 3, 昭和 13(1938), pp. 10~21.

(36) “鐵道圖書館規程”中 “第6章·列車文庫”, 鐵道圖書館藏書目錄(昭和 15年版), 京城, 鐵道圖書館, 昭和 16(1941), 卷末.

(37) 동아일보, 1922年 9月 3日, 2面記事.

型文庫를 특설하는 전당차에 연결시키어 四輛分을 編成하였으며, 동시 京釜 間 12列車에는 新刊圖書 25冊과 雜誌 25種을 부설하여 두달에 한번씩 교환키로 하여 제 3·4의 2輛分으로 小型文庫를 설치하였다.⁽³⁸⁾

이상과 같이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閱覽奉仕 活動은 오늘날 우리 圖書館界에 비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多角的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일반의부인을 대상으로 취해진 독서의 장려와 더불어 실시된 적극 무료대출로써의 館外奉仕活動이 技術·工學이나 産業分野보다는 皇國民으로서 필요한 교양서적이거나 아니면 日本人보다는 朝鮮人 위주의 國民精神 作興을 내용으로 한 心田文庫의 영역으로서 편중·제한 되어져 나타난 사실이다.

結 論

이상에서 論及한 事項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日帝下 鐵道圖書館은 特殊圖書館의 성격으로서, 鐵道局 職員外에 一般外部人에게도 圖書館利用의 機會를 제공하여 公開圖書館의 一面貌도 함께 보여 주었음은 대단히 鼓舞的인 일이었다.

2) 職制上에서는 館長 이하 一般事務職員이 모두 日本人만으로 組織되었으며, 朝鮮人은 原則적으로 그 採用을 不許하는 가운데, 中日戰爭이 衰盡함에 이르러 극히 小數人의 朝鮮人이 傭員과 수위·소사등으로 채용됨에 불과하였다.

3)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藏書蒐集傾向은 自然科學系統의 技術분야와 參考書籍등이 세밀히 蒐集되고 있었으며, 그 構成은 이른바 日鮮一體를 도모하고 國民精神振作을 위한 皇國臣民化政策에 필요한 資料들이 重點的이었다.

4) 圖書館 利用狀況 調査에서는 館內利用이 館外利用에 비해 다소 優勢한

(38) 朝鮮圖書館研究會. “鐵道圖書館의 列車文庫,” 朝鮮之圖書館 Vol. 5, No. 6, 昭和 11(1936). p. 66.

형편이다. 館內利用者는 주로 鐵道局員과 그 家族들로서 대부분이 日本人 對象이 있으며, 館外利用者는 朝鮮人 學生과 기타 成人들로서 나타난다. 卽, 우리 朝鮮人들의 利用은 館內보다는 館外奉仕의 主對象者들로서, 特別 敎養文庫나 心田開發文庫와 같은 分野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閱覽制度上 當館에서 그 必要를 認定하는 者, 또는 市內 居住者의 連帶保證人의 署名을 要하는 일, 所屬機關長의 署名을 얻어야 하는 제약성등은 日帝下 더욱이 失職이나 徵兵등으로 生活이 安定치 못했던 朝鮮人들에게는 圖書館利用의 機會가 그렇게 自由스러웠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分析된다.

5) 圖書貸出에서는 有料閱覽制를 擇하고, 貸出圖書數는 물론 그 資格까지도 일부 制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制限性들은 日帝時 戰爭體制狀態에서 日本人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 國民들에게 圖書館利用의 生活化를 阻害하는 一要因으로서 分析된다.

6) 館外貸出 奉仕活動에 있어서는 각종 「敎養文庫」나 「순회문고」 「列車文庫」 「호텔문고」 「心田開發文庫」 「讀書文庫」 등과 같은 多角的인 方法으로서 全域에 걸쳐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7) 奉仕領域의 하나로서, 특히 強調될 사항은, 中日戰爭을 계기로 「교양문고」외에도 別度로 「心田開發文庫」를 編成시켜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 점이다. 그리하여 無料로서 적극적인 館外貸出奉仕를 시도하였으니 日帝下 많은 社會教育機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鐵道圖書館은 鐵道沿線을 活用하여 당시 植民教育政策에 앞장서 國民精神作興에 적극 參與하였음을 立證하고 있다.

8) 逆으로, 以上과 같은 日帝下 鐵道圖書館의 多角的인 奉仕活動의 저변화는 오늘날 우리 圖書館界가 近代化로 轉換하는데에 一橋梁的인 계기를 심어 주었다고 주장함도 看過할 수 없으며, 동시에 그들의 적극적인 봉사태도는 오늘 우리 現實에 비춰보아 보다 많은 도서관인의 각성을 불러 일으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

A Study on the Railroad Library under the Japanese Rule

Kim, Po Ok

〈Abstract〉

Among many open libraries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only the railroad library as the character of special library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s remarkable for having opened its facilities to outsiders as well as the interior users.

This study tries a) To look into what were the colonial background, aim and motiv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ailroad library under the Japanese rule, b) To analyze its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its organization, c) And to find out its vestiges and the effects which it has on our country's library circl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A. The railroad library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functioned as a public library by the outside book's circulation rather than the interior using.

B. The outsiders were qualified to use it only when they got the joint guarantee for the city resident, which means that the opportunity of the circulation was not free for the Koreans rather than the Japanese.

C. From the aspect of collections, technical books such as natural science, and reference ones tended to be collected, and their whole composition was focused on the materials for the Japan-Korea identi-

fication scheme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pirit as the Japanese empire's subjects.

D. In the respect of its organization, all the clerical employees, as well as the chief librarian were composed of the Japanese. Although the Koreans were in principle prohibited from working there, a few of them were employed as guard or servant as the China-Japan War was close to the end.

E. The area of the outside book's circulation service was expanded throughout the whole region along the railroad connecting Pusan with Manchuria. Such a service activity which contained several meanings, was tried by means of culture's books, circuit's books, train's books, hotel's books, mind's development books and reader's reading books etc.

F. Such matters as the limitation on book circulating and the quantity of circulation book, the paid circulation and the partial restriction on free circulation mean the wartime system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also appeared as a factor of hampering the Koreans from getting accustomed to using library, which has affected them until now.

G. The noticeable thing in the service activity is shown in attempting the diversified and positive way of service like free circulation in order to solidify the attitude of the Koreans toward war by organizing mind's development books as well as culture's books with the China-Japan War.

H. On the other hand, it can not be passed over that the diversified service activity of the railroad library played a role of bridge in turning of today's library circles of ours to the modernization.